

# 觀光統計의 信賴水準 向上에 관한 研究

최 병 길\*

目	次
1. 序 論	3. 觀光統計의 信賴水準 向上
2. 觀光統計上의 問題點	3.1 觀光統計의 體系化
2.1 觀光客數 集計上의 限界	3.2 統計學的 信賴性
2.2 觀光收入 推定의 限界	4. 結 論
2.3 濟州道の 觀光客 및 觀光所得 集計方法과 問題點	

## 1. 序 論

세계여행 및 관광위원회(WTTC, 1992)의 보고에 의하면 "여행 및 관광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이다"라고 되어 있다. 여행 및 관광산업은 현시점에서 매출액면에서나 고용인구면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장 유망한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관광과 관련된 연구 역시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회현상으로서 설명되어지는 관광이 사회과학연구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통계적 응용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문제점 가운데는 사회과학 연구의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일 수도 있지만 관광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야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관광연구와 관련하여 관광통계상의 문제점에 관한 논문(BarOn 1991, Frechtling 1991, Hannigan 1994) 가운데는 일반적으로 기초적인 통계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관광현상에 대한 정의나 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관광의 시간·공간적 구분이 통일되어 있지 않거나 통일된 견해를 적용한다 해도 현실적으로는 관광통계의 집계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나라와 지역마다 제도적, 문화적 또는 인식의 차이가 일관된 규정을 적용시키기 보다는 행정상의 편리성이나 통계집계상의 용이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관광자수나

\*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조교수

관광지출액이 발표되고 있다. 1991년 WTO주관하에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여행과 관광통계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관광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는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일반 다른 기업이나 제조업들은 통계의 신뢰도를 중시하여 품질향상이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에 비해 관광산업은 통계의 신뢰도를 별로 중시하지 않는 것이 관광산업 발전의 장애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관광산업은 소비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도 적극적이지 못할 뿐더러 관광통계상의 신뢰성 부족으로 그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관광관련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해서나 그리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광분야 통계자료의 신뢰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관광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관광통계상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이런 관점에서 관광통계의 신뢰수준을 향상시키는 점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 2. 觀光統計上の問題點

### 2.1 觀光客數 集計上の限界

관광객의 집계에서 관광객인지 비관광객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현재 WTO에서 정한 기준에 따를 것을 권고받고 있지만 실제로 모든 나라와 지역에 똑같은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 WTO(Madrid, 1981) 정의에 의한 국제관광객은 '1일 이상 1년 미만을 해외여행하는 사람으로서 방문지에서 경제적 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여행하는자'라고 되어있다. 이 정의에는 분명히 시간적·공간적 한계가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관광객통계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우선 시간적 개념에서 일일관광객을 관광통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관광객의 정의와 관광통계 집계상에서도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공간적 개념에서는 국경을 벗어나야 성립되는 국제관광객의 경우 나라와 나라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구의 이동이 크게 예상되는 유럽의 대통합은 노동시장까지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국경을 벗어난다는 것이 마치 우리나라의 지방을 방문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다른나라를 방문한다는 것은 해외방문이 되기 때문에 입·출국자 통제가 용이한 나라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관광객이동에 따른 관광객송출국(Origin country)과 관광객수용국(Destination) 간에는 항상 일치된 통계치가 발표되어야하나 실제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제관광통계를 집계하는 방법은 전세계적으로 11가지(외래객 입국관련 통계 6가지, 내국인 출국 관련 5가지)가 있다. 각 나라는 이중 두세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관광산업의

필요에 적합하다기 보다는 행정적인 편리성 때문에 선택된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국제관광객통계는 교통부와 한국은행 등이 내부규정으로 원칙상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이 채택한 세계관광기구(WTO)의 기준<sup>1)</sup>을 따른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출입국자 및 환전액을 모두 관광통계로 잡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대로 집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가 국제관광객의 통계집계가 관광자의 정의에 따른 기준을 따르기 보다는 인구의 국경이동에 따른 금전적이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관광자의 기준도 원칙적으로는 '... 경제 적 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여행하는자'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관점에서 관광객인지 비관광객인지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간 무역외수지 거래항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리적 조건상 출입국장소가 분명하기 때문에 유럽의 다른 나라들 보다는 국제관광객통계의 신뢰도 면에서는 높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적용되는 기준에 의하면 입국외국인을 모두 관광객으로 분류하는 점이나 실제 관광객이 아닌 유학생의 경비를 여행수지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관광수출입 통계가 실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국제관광객은 입국시 입국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방문목적에 따른 입국자의 분류가 대체로 용이하다. 그러나 국내관광객통계의 경우에는 그 기준부터가 모호하다. 시간적개념에서는 국제관광객의 정의나 관광통계집계 방법을 원용하고 있지만 공간적 개념에서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제관광객 기준과는 달리 그 한계가 불분명하다.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자 정의에 대한 공간적 개념은 군면적의 평균반경인 '16km이상(또는 시·군 행정구역틀 벗어나)을 여행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 거리는 교통의 발달로 인한 거리의 인식이 옛날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적합한 거리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라마다 25~100마일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도 각국의 지역적인 조건에 따른 거리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한 거리 측정단위로서 100리(=40Km=25miles)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가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김상무, 1995). 100리가 가져다 주는 물리적거리나 막연히 먼곳 또는 집으로부터 먼곳이라는 심리적거리로서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는 거리 때문이다.

사람들이 '여행'이라고 생각하고서 집을 떠날 경우 시간적·공간적 차이는 분명 존재하게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관광통계가 필요하다는데 있고 관광지의 특성에 따라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여 관광통계가 발표되고 있으나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시켰을때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점이다. 관광통계가 관광지의 지리적 조건에 따라 관광지의 도착지수, 숙박시설 도착지수, 관광시설 이용

- 1) 외래객입국관련 통계는 국경에 도착하는 모든 외국인: 당일여행자를 포함하는 경우와 불포함하는 경우, 숙박시설도착지수, 숙박일수 집계, 총숙박일수 집계, 총금액집계 등이며, 내국인 해외여행 관련 통계는 여행목적지별, 관광목적 여행자만 집계, 외국에서의 숙박일수 집계, 관광목적의 숙박일수 집계, 총지출집계 등이 있다. (Anthony Edwards, The reliability of Tourism, Travel and Tourism, 1991, 1)의 원본 가운데 관광정보, "관광통계기준 소개, 1990, 1, 2월호에 개재된 내용을 재인용 하였음.
- 2) 관광객과 외화지출을 목적별로 세분하는 것을 말한다.

자수 등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시키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 밖에 없으나 보다 중요한 점은 행정상의 편의성이나 자료획득비용 등이 관광통계작성 방법을 선택하는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 2.2 관광수입추정의 한계

통계적·계량적 방법으로서 관광통계가 필요한 것은 국민의 관광활동이나 여가활동과 같은 사회 지표를 파악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경우도 있지만 관광의 경제적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에서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즉 투자효과(승수), 고용효과, 지역개발효과, 세수입효과, 산업연관모형에 의한 파급효과 등을 알아보는 데는 관광통계가 제공되어야 한다. 관광이 관광대상국 또는 관광지에 크게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산업과 비교해 볼때 그 추정량에 대해서 매우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우선 관광수입의 집계는 관광객의 숫자 파악보다 더 모호하여 구체성이 결여된 개략적인 숫자로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관광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항목이 다종다양할 뿐만 아니라 나라마다 지역마다 관광객의 집계방법이 다르듯이 관광수입의 추계방법도 다양하다. 여행에 관련된 IMF의 개념을 살펴보면 여행자로 정의된 여행자가 그들이 여행하고 있는 경제로부터 자신의 용도를 위해 취득하는 모든 재화 및 용역이 「여행」항목에 기록된다. 이 재화 및 용역은 여행자에 의해서 혹은 그를 대신하여 지불될 수도 있고 무상으로 제공될 수도 있다. WTO가 권장하고 있는 국제관광수지의 분류는 당일관광객(Excursionist)의 수입도 포함시키고 있으며, 고용에 의한 보수나 국제운임수입은 관광수입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또한 외국관광객이 방문국의 등록된 운송기관에 지불한 일체의 금액은 여행계정에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운송, 여객서비스 계정」에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여행경비는 국제운임수입을 제외한 그 나라 안에서 발생한 운임만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다.

관광산업은 외화획득수단으로 국가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관광을 통해서 관광자가 관광지에서 직접 서비스의 구매를 통한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특성 때문에 전통적인 수출산업과는 구별이 된다. 관광산업에 대한 설명으로는 “관광객을 위하여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개발·생산·제공하는 다양한 업종 내지는 기업들의 결합체”로서 이는 여가산업, 정보산업, 교육산업 등과 함께 공통된 목적을 중심으로하여 연결시킨 ‘목적중심형 산업’이나 ‘시스템 산업’이라는 신산업분류체계를 적용한 횡적인 산업체계(이연택, 1993)라고 되어 있다. 이는 제품별분류로 이루어진 산업분류표상의 기준과 다를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이 산업분류표상에 독자적인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어디까지 관광통계로 포함해야 하는지 그 한계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관광산업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 분석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유엔국제산업분

류표(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 ISIC)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관광활동국제표준분류(Standar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Tourism Activities : SICTA)에 매우 자세하게 세분되어 있으나 산업분류표상의 다른 부분과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산출된 관광산업의 규모를 산업분류표상에 나타난 다른 산업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관광산업의 규모를 파악하는 일은 이와 같이 그 한계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체를 제대로 반영하기가 힘들다. 또한 관광수입이나 지출액 파악은 주로 관광자가 관광활동시에 얼마만큼의 경비를 지출했는가를 밝혀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즉 관광자를 대상으로 직접면접이나 설문지를 통하여 전체관광수입을 추정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집계과정과 집계작업의 정확도에서 표본의 대상이나 응답자의 응답을 어느 정도 믿어야 하는가에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2.3 제주도의 관광객 및 관광소득 집계 방법과 문제점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국내 다른 관광지보다 관광객수나 관광소득을 추계하는데 용이하다 할 수 있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은 항공편과 선박을 이용하게 되는데 1994년 제주도 통계에 의하면 항공편이 3백3십6만3천명으로서 전체 관광객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박은 33만명으로서 9%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관광객수에 대한 파악은 1987년 까지 표본추출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항공편을 이용한 국제선의 경우는 이용객의 100%, 국내선은 90%, 선박여객의 경우에는 70%를 관광객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관광객수 관광객의 성향별 분류는 제주국제공항과 여객선부두에 제주도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관광협회 직원이 상주하며 입도객을 대상으로 관광객인지 비관광객인지를 육안으로 구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최종적인 통계의 집계나 발표는 제주도청의 관련부서에서 담당해 왔으나 1996년부터는 모든 관광관련통계의 집계나 발표가 관광협회 주관으로 행해지고 있다<sup>3)</sup>.

과거의 방법과 현재의 방법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관광객을 분류하고는 있으나 과연 육안으로 관광객인지 비관광객인지를 구분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표본추출에 의한 방법 역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추정 퍼센테지가 얼마만큼 모집단을 대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되는 점이다.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두개의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오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3) 관광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관광협회는 「관광통계」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 이유는 관광산업체 및 그 이용자들에 대한 관광통계와 관련된 업무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제주도 전체에 대한 통계업무는 우리나라 전체 관광객수에 대한 통계업무가 법무부에서 이루어지듯이 행정당국에서 관광협회의 도움을 받아 집계·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통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뢰수준은  $\pm 5\sim 10\%$ 의 허용오차를 인정하고 있다.

제주도의 관광수입추계방법은 1987년 관광경비지출액을 표본조사에 의하여 추계한 다음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후 당해년도의 관광객수를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에 의하여 추계하여 왔다. 즉 기준년도를 1987년도로 정하여 이해에 집계된 1인당 관광지출과 물가상승율 그리고 관광객수의 집계과정을 통하여 매년 관광수입이 발표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주도 관광수입의 추계방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1987년도에 이루어진 관광수입의 추계가 기준점으로 잡고 있으나 그동안 국민들의 소비수준이나 여가활동상황에 많은 변화를 보여왔다. 국민들의 여가나 여행에 따른 의식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수준만큼의 관광소비 증가가 있어 왔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며, 신혼여행객의 여행지출이 수학여행객의 여행지출보다 무려 262%가 높게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형태별 가중평균이 아닌 전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단순평균을 적용시키고 있다(김태보, 1991). 또한 제주도 관광객의 여행지출 가운데 왕복교통비는 현재 50%를 적용시키고 있다. 국제관광수지의 분류를 제주도에도 적용시켰을때 국제운임은 일반적으로 관광수입이나 지출에서는 제외시키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 관광객의 경우에도 육지와 제주도간의 교통비는 관광수입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여행비 가운데 커다란 몫을 차지하고 있는 거주지와 관광지간의 교통비는 관광지 경제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자의 여행지출로는 계산을 할 수 있으나 관광지의 수입으로 분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3. 관광통계의 신뢰수준 향상

관광통계의 신뢰수준 향상은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관광통계의 체계화를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료수집에 따르는 통계학적 신뢰성 향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관광통계의 체계를 수립한다는 것은 현실과 이론상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관광통계상의 문제점들을 줄임으로써 신뢰수준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두번째 접근 방법으로는 사회통계학에서 쉽게 나타날 수 있는 통계적 오류를 줄임으로서 관광통계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관광은 사회현상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관광현상에 대한 연구 역시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시 적용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으며 통계자료의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통계자료는 수집단계에서부터 정리, 검토, 분석, 결론을 맺는때까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고, 항상 에러를 수반하기 때문에 신뢰성(Reliability)의 문제가 제기되어 진다.

### 3.1 觀光 통계의 체계화

관광 통계의 체계화는 관광 통계의 일반적인 틀이 체계적이면서 일관성이 있도록 관광 통계의 구성이나 한계, 분류 및 수집 방법 등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광 통계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국가나 지역,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도록 포괄적이어야 하나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된다.

1984년에 캐나다는 관광 자료에 대한 국가적 업무팀을 구성하여 관광 수요 자료의 구성 및 자료의 수집 방법에 대한 연구가 종합적으로 실시되었다(Ritchie and Sheridan, 1988). 기초 자료 및 관광객 행태와 관련된 최소한의 필수 자료의 종류 및 그 수집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예를 들면, 여행자로 분류되는 공간적 기준이 50마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의미를 더 이상 부여하지 않는다면, 숙박 여행객과 당일 여행객에 대한 조사 방법이 달라야 하며, 자료의 수집 방법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광 통계가 주기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권고하고 있다.

관광 통계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은 국제적으로는 WTO를 중심으로 국내에서는 관광 학자나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WTO는 관광 통계 개선을 위하여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각국에 권고하고는 있지만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 그러한 권고를 수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관광 통계를 집계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오랫동안 적용했던 기준을 바꾼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간의 문제 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을 때 관광지와 관광지간의 통계적인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료가 유용하게 활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적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데이터는 항상 일치할 수는 없지만 지역적 차원에서 수집된 자료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자료로서 이용되어야 한다. 관광의 수요자 및 공급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적 차원에서의 자료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계 자료의 체계가 이루어 진다면 관광 통계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통계연보(1993년도)에 의하면 1993년도 외국인 입국자의 총수는 2,568,494명, 상륙허가자(승무원 및 긴급, 재난상륙) 523,594명으로 발표되었다. 외국인 입국자에 해외 교포의 입국자수를 더하면 총 3,419,237명이 된다. 교통부의 한국관광 통계에 의하면 외래객 숫자는 항상 관광객 숫자가 되며 이는 총 3,331,226명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 관광객 숫자는 교포 포함 외국인 입국자 가운데 97.4%가 관광객으로 분류되고 있다. 관광 통계상에서 목적별 외래객 입국 현황을 관광, 상용, 방문·시찰, 공용, 회의참가, 기타로 6개로 재분류를 하고 있으나 「방문·시

찰」을 방문과 시찰로 구분하여 집계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한국관광연감, 1990). 또한 WTO의 관광객자 통계에 의하면 유학은 관광으로 분류하지 말아야 하나 전체관광객수 가운데 기타로 분류되고 있다.

국내 관광지에 대한 관광의 동기 또는 관광의 목적에 대한 분류는 더욱 세분화 되어 있지만 세분화되어 있는 만큼 명확하게 구분되어 졌다고 볼 수는 없다. 목적별 분류는 설문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분류해 주어야하나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응답한 경우에는 올바른 자료가 구해졌다고 볼 수 없다. WTO의 정의에 의한 국내관광자는 “... The motives for such travel may be : ① leisure (recreation, holidays, health, studies, religion, sports); ② business, family, mission, meeting.”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국내 관광관련서적의 해석은 서로 다르다. 첫 번째는 ① 즐거움, 위락, 휴가, 스포츠 ② 상업, 친구·친지방문, 임무, 회합, 회의, 건강, 연구, 종교으로 해석한 경우와(윤대순, 1992), 두 번째는 ① 여가활동(위락, 휴가, 건강, 연구, 종교, 스포츠 등의 제 활동) ② 업무, 친지방문, 사절, 회의 등의 제활동으로(손해식의 1993), 그리고 세번째는 ① 휴양(recreation), 휴가(holiday), 스포츠, 업무(business), 친척·친지방문, 파견(mission), 회의참가, 연수, 종교 등인자를 말한다(관광정보, 1990)로 되어 있어 통일된 견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WTO에서 크게 두가지로 분류한 이유는 leisure가 가져다주는 의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① 여가시간에 행해지는 여러 가지 활동과 ② 여가시간이 아닌 의무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분류되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가활동으로서 거주지를 벗어나서 행해지는 recreation과 휴일을 맞이해서 즐기는 여행(holidays), 건강을 위해서(health), 전문을 넓히기 위해서(studies), 스포츠 등이 여가활동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본다면, 두 번째 분류는 상용여행, 가족이나 친지 방문(VFR), 업무(mission), 회합이나 회의참석(meeting) 등 불가피하게 행할 수 밖에 없는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즐거움과 위락은 영어에서 Pleasure에 해당되는 말이지만 관광에서는 기분전환이나 순수관광이 더 Pleasure에 가까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Recreation의 해석은 분명 휴양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recreation은 신체적인 면을 강조하는 대신 휴양은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는 의미 전달일 수 있기 때문에 recreation 그 자체가 오히려 본래의 의미를 잘 전달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휴가는 vacation만을 연상하게 되므로 일요일(sunday)이나 연휴 또는 공휴일(holidays)을 포함해야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Mission은 사절보다는 (공적인)업무에 가깝기 때문에 business를 상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쉽게 의사전달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세 번째 해석에서는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에 원래 단어를 부연하여 그 뜻을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학술적 용어가 바르게 표현되었다 하더라도 설문지 등에 실제로 적용할 때는 응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권고되어진다. 위와 같이 해석된 분류를 이용하여 제주도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조사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여행의 목적에 대한 개념과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혼여행의 경우 여행의 목적이 위락이어야 하는데도 정확히 답을 한 경우는 전체 신혼여행객의 50.41% 밖에 되지 않고, 기타 관광동기(학업, 요양 및 건강관리, 경유, 기타 잡무)라고 한 것이 전체의 48.33%, 업무차 신혼여행을 왔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다(제주대 산학협동 보고서, 1992)”. 이와 같은 현상은 위락이외에는 신혼여행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국내관광지 가운데 제주도 관광협회(제관협자료, 1993)에서 사용되고 있는 1993년도 여행목적별 분류에 의하면 관광여행, 신혼여행, 수학여행, 가족여행, 레저·스포츠여행, 휴양여행,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관광은 물론 겸목적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주 목적의 분류에서 관광여행, 레저·스포츠여행, 휴양여행 간의 구분이 관광객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 여기에서 분류된 의도는 관광여행은 관광지를 찾는 여행객으로(touring, sightseeing), 레저·스포츠는 여가활동의 일환 가운데 스포츠 및 낚시, 등산 등이 포함되고, 휴양은 vacation 차원에서 분류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분류된 기준에 의하면 레저·스포츠는 휴양으로, 휴양은 휴가(holiday)로 분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1994년도에는 여행목적이 신혼여행, 수학여행, 효도휴양, 레저스포츠, 상용연수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996년도에는 휴식·휴양여행, 수학여행, 신혼여행, 가족관광, 업무여행, 레저·스포츠여행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같은 자료의 수집에서도 서로 다른 프레임을 적용시켰을때 자료의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다. 특히 관광객의 행태조사는 설문지의 구성이나 자료수집방법에 따라 그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매조사시 일관된 프레임으로 관광통계를 수집한다면 자료의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리라 믿는다. 관광통계는 횡단면 자료(corss-sectional data)인 경우가 많다. 매년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발표되는 이러한 자료에서 자료의 수집이나 방법상에 일관성이 있는 조사가 된다면 이에 대한 시계열자료(time series data)로도 활용될 수 있다. 두개의 특성이 결합된 자료를 얻게 된다면 관광사회 변화과정 및 다양한 변화요인의 상호작용 등을 동시에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명절(구정, 추석)에 인구의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명절에 고향을 찾는 경우 관광객 정의에 의하면 친구나 친지방문객에 해당되며 관광통계상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귀성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관광객 숫자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명절에 인구의 이동이 심한 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며 관광지에 고향을 둔 사람이 명절에는 귀성객

으로 그 이외에는 관광객으로 분류되는 것도 우리나라 관광객 통계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관광지출에 대한 통계에서도 유학경비는 여행수지에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관광수지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포함하여 관광수지로 발표하고 있다. 국내관광지의 경우에도 단체관광, 효도관광, 신혼관광, 가족관광 등에 따라 그 지출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평균보다는 가중평균을 이용하여 관광지출을 산출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체 여행경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주지와 관광지간의 교통비는 전체 관광지출에 포함시켜야 하나 관광지의 수입은 아니다. 이에 대한 적용의 한계를 명시하는 일이 관광통계의 일관성 및 한계를 명시하는 일일 것이다.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의 지출 가운데 왕복요금의 50%를 관광수입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타지역의 관광수입 계산방법이 다르다면 관광지간의 관광수입비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교통수단의 발달은 과거에 숙박이 필요했던 관광지도 일일방문으로 관광을 가능하게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용교통수단 변화에 따라 일일관광객에 대한 관광통계의 수집방법도 이에 맞추어 계속 개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 3.2 통계학적 신뢰성

대부분의 관광통계는 관광자정의에 대한 모호성으로 모집단의 한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크기 때문에 전체를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한 가능하지만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모집단을 대상으로 자료를 구하기 보다는 표본조사를 통하여 획득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통계치를 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표본의 특성을 구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모집단의 특성과 표본의 특성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표본의 특성이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표본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오차(Error)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 오차는 똑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했을때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실제의 특성과 표본을 통해서 구해진 특성과의 차이를 말한다. 따라서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하는데는 항상 이러한 오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오차는 항상 존재하게 마련이나 오차의 폭이 큰 경우 자료에 대한 신뢰성(Reliability)의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신뢰성이 결여된 통계자료는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의사결정에 전혀 도움을 가져다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

서베일을 이용하여 자료를 구하고자 할때 자료수집의 방법과 같은 상황이 여러번 반복했을때 항상 일치된 결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신뢰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신뢰성의 문제는 변수적에러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신뢰성에 관련된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다. 단지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킨다든가, 똑같은 측정을 여러번 한다든가, 똑같은 측정을 위해서 다른 측정양식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Baker, 1994). 그러나 이론상으로는 쉬울지 모르나 실제 적용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표본의 크기를 얼마로 할 것인가? 똑같은 측정을 어떻게 반복 실시하며, 어떤 방법으로 측정양식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는 쉽게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 대부분의 연구는 경제적인 문제와 시간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결국 한정된 경비와 시간을 가지고 신뢰성의 수준과 타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방법 가운데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은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일이다. 실제로 표본의 크기는 필요한 통계학적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커야하지만 덮어놓고 클 필요는 없다.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일은 비용증가라는 회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통계학에서 표본의 크기(Baker, 1994)는 모집단의 크기와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집단의 분산정도와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표 1-1> 1994년도 계절별 여행형태별 제주도 관광객수

	평 균 (%)	겨 울 ('93.12-'94.2월)	봄 (3-5월)	여 름 (6-8월)	가 을 (9월-11월)
소 계	100%	740,467	1,001,352	884,482	830,128
일 반 단 체	18.63	116,686 (15.75)	264,196 (26.38)	112,934 (12.77)	162,710 (19.60)
수 학 여 행	7.29	19,356 (2.61)	129,025 (12.88)	73,182 (8.27)	44,895 (5.41)
신 혼 여 행	12.59	118,210 (15.98)	159,352 (15.91)	23,470 (2.65)	131,366 (15.82)
가 족 관 광	45.43	382,242 (51.62)	315,099 (31.46)	517,523 (58.51)	333,075 (40.12)
개 인 및 기 타	16.05	103,973 (14.04)	133,680 (13.35)	157,373 (17.79)	158,082 (19.04)

출처: 관광자료집, 제주도 관광협회, 1994, 1995년도, P-value < 0.0001

관광은 계절에 따라 여행의 목적이나 여행의 형태에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표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계절에 따른 여행의 형태에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단순무작위로 표본을 구성하는 것 보다는 층화표본(stratified sampling)을 이용하여 표본의 비율을 구성한 후 그 구분에 따라 무작위표본을 이용하는 것이 표본의 크기를 줄이는 대신에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층화표본은 무작위표본보다도 표본수물 적게 잡아도 같은 정도로 신뢰도가 높은 조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4) 1994년도 제주도 관광협회에서 조사된 관광객만족도에 의하면 여행의 형태에 따라 방문회수, 여행목적, 예약경로, 제주선택동기, 여행일정, 이용숙박시설, 종사원서비스, 실제여행경비 및 제주여행경비에 만족도, 연륙교통수단, 주요이용교통수단, 교통수단에 대한 만족도 등에서 p-value가 0.0001 미만으로 나타나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여행형태별 표본조사수(제주도 관광협회 만족도 조사)

	'94. 5. 2-5. 14	'94. 8. 1-8. 7	'96. 5. 13-6. 2
소 계	1,491(100.0)	1,521(100.0)	1196(100.0)
일반단체	556(37.3)	387(25.4)	246(20.6)
수학여행	-	-	113(9.4)
신혼여행	-	-	121(10.1)
가족관광	41(2.7)	382(25.1)	553(46.2)
개인 및 기타	894(60.0)	752(49.5)	163(13.6)

\* '96년도의 신혼여행은 개별여행으로, 수학여행은 단체관광으로 분류되었다.

\* '96년도 자료를 '94년도 방법으로 재분류한 후의 집단간 차이에 대한 P-value < 0.0001

표본의 크기는 구하고자 하는 신뢰도 및 표준편차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여행의 형태에 따른 표본의 구성은 모집단의 구성비율과 관련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2〉에 의하면 '94년도 5월과 '96년도 5월에 조사된 표본은 똑같이 봄철 관광객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차이가 나며, 모집단의 구성비율과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프레임을 사용한 관광통계의 수집은 앞에서 논의된 용어선택에서 일관성이 없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과 똑 같은 문제를 포함하게 된다.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일은 응답자의 편견(bias)을 피할 확률을 높여주는데도 도움을 가져다 준다. 응답자들에게 요구되는 자료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힘들다거나 고의로 불성실한 응답을 하는 경우와 같이 응답에 대한 에러를 가져오게 하는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킴으로써 그 비중을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 4. 結 論

관광산업은 국가의 주요 산업이면서도 다른 산업에 비해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달리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 또한 관광산업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는 항상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부족한면도 없지 않다. 이와 같은 현상은 관광산업이 사치 또는 향락산업이라는 국민적 정서 때문에 오는 결과일 수도 있지만 관광통계의 한계나 신뢰성 부족으로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광통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일은 관광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많은 도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정책을 수립하거나 호텔이나 여행업, 관광교통업과 같은 관광사업의 경영과정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광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성 있는 관광통계가 제공되어야 한다.

관광은 사회현상의 일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통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는 사회통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 사회통계상의 문제점은 통계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고 본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관광 및 관광산업에 대한 정의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며 국가와 국가간, 지역과 지역간 그리고 같은 지역의 서로 다른 시점에서조차도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수집되어진 통계가 발표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광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나 현실적인 문제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는데 있을 것이다.

관광통계의 신뢰수준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관광통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개선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관광통계의 신뢰수준 향상을 위한 두가지 접근 방법으로서 관광학적 접근과 사회통계적 접근을 말하고 있다. 관광학적 접근으로는 관광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특성에 기초하고 있다. 국가나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관광통계의 한계를 정해줌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한 통일된 관광통계를 수집하는 것 등을 말한다. 즉 국제적인 기준이나 국가적 기준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각각의 관광지 특성에 맞는 일반적 틀을 적용하여 관광통계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방법인 사회통계학적 접근 역시 현실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통계학적 신뢰성 향상을 통해서 관광통계의 신뢰수준 향상을 가져오는 것이지만 사회현상의 일 부분으로서의 관광현상에 대한 특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관광정보 (1990), "관광통계기준 소개 : 제1회, 관광통계작성 기준 확립의 필요성, 관광통계 확립에 관한 WTO회의, IMF국제 수지 편람," 1990년 1,2월호.
- 관광정보 (1990), "관광통계기준 소개 : 제2회, 국제관광통계에 관한 WTO정의," 1990년 3,4월호.
- 관광정보 (1990), "관광통계기준 소개 : 제3회, 한국관광통계작성 현황, 한국관광통계의 개선방향," 1990년 5,6월호.
- 김태보 외 4인, (1991), 지역발전연구, "제주도 관광소득의 경제효과분석," 제주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 손혜식, 정익준, 이방식 편역, 「현대관광론」, 범한서적출판사, 1993년
- 이연택 (1993), 「관광기업환경론」, 법문사
- 윤대순, 관광경영학원론, 백산출판사, 1992년
-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산학협동 연구보고서, "국내·외 관광객의 성향 분석 및 그에 따른 개선 방향", 제주도, 1992. 11.
- 제주도·제주도관광협회, 관광객만족도조사, '91-'93, 제관협자료 제93-3호, 1993. 12.
- 제주도, 주요행정현황, 제주도 관광문화국, 1995년
- 출입국관리통계연보, 법무부, 1993년도, 정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111-01.
- 한국관광연감, 한국통계의 개선할 사항, 사단법인 한국관광개발연구소, 1990, pp. 45-53.
- BarOn, Raphael (1991),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International Tourism Statistics," The Tourist Review 2, pp. 28-34.
- Frechtling, Douglas C. (1991), "Improving the World's Tourism Statistics : Recommendations of an International Conference,"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30, No. 2, pp. 49-51.
- Hannigan, Kevin (1994), "Developing European Community Tourism Statistics," Annals of Tourism, pp. 415-417.
- J. R. Brent Ritchie and Michael Sheridan, "Developing An Integrated Framework For Tourism Demand Data In Canada,"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27, No. 1, Summer 1988.

Kenneth G. Baker, George C. Hozier, Jr., and Robert D. Rogers "Marketing Discuss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Travel and Tourism Research Research Theory and Methodology and the Tourism Industry : A Nontechnical Association, Vol. 27, No.3 winter, 1994.

Technical Handbooks on the Collection and Present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ourism Statistics, Introduction (Madrid : W. T. O. 1981)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Brussels, Belgium, 1992, p. 136